

한국산림기술인회 NEWSLETTER

2024.03.



www.tkfea.or.kr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청명

하늘이 맑아지는 清明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여기저기 생명이 움트는 화창한 봄날,
봄기운이 가득한 **4월**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4월,
알록달록 만개할 봄꽃처럼 얼굴에도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는 한달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달 우리 회 소식은?



기술인회 소식

한국산림기술인회 제2차 긴급이사회

2024.03.04



기술인회 소식

2024년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2024.03.04



기술인회 소식

한국산림기술인회 제3차 임시이사회

2024.03.14



기술인회 소식

2024년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2024.03.14



기술인회 소식

한국산림기술인회장 보궐선거 개표

2024.03.14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소식

2024년 산림기술자 교육 운영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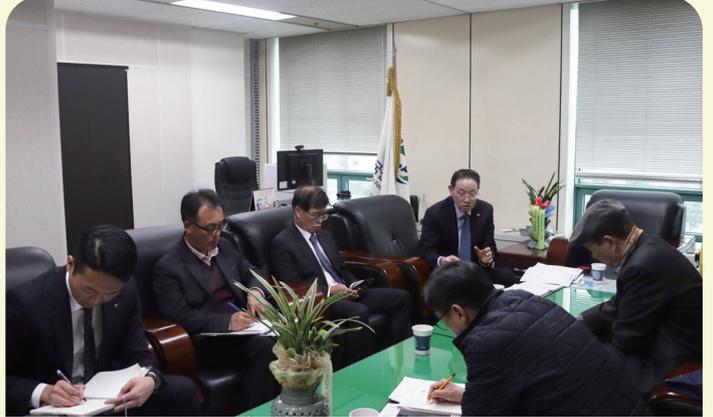
2024.03.14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소식

2024년 제1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

2024.03.18 ~ 03.22



기술인회 소식

2024년 제1차 미래전략 회의

2024.03.25



기술인회 소식

제1차 산림기술연구원 업무보고

2024.03.27



한국산림기술인회 3월 보도자료

NEWS

http://www.tkfea.or.kr |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 NEWS PAPER

제4대 진영문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 선출

“소통·화합으로 이끌 것” ... 임기 2025년 1월 24일까지



사진 = 제4대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 진영문

앞으로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이끌어갈 새 수장이 확정됐다. 18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진영문 대표가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는 영예를 안았다. 진영문 신임 회장은 원광대학교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원광대 산림조경학과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사)사법협회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기술인회 전북지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현재 거목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북도지회장, 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사업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산림공학·경영기술자 기술특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 = 지난 14일 한국산림기술인회 진영문(우측) 신임 회장이 당선증을 교부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기는 당선일인 지난 14일부터 오는 2025년 1월 24일까지다. 앞으로 진영문 신임 회장은 임기 동안 공약으로 내건 ▲업무분회 및 산림청 소통 강화 ▲지역 산림사업 활성화 기여 ▲산림사업 개발·발굴 등을 수행하며, 기술인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진영문 신임 회장은 “한국산림기술인회 새 수장으로 당선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기술인회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사진 = 지난 3월 14일 진영문 한국산림기술인회 신임 회장이 결선 투표 실시 이후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자세히 보기

4월 5일, 식목일은

나무심는날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4월 교육과정 안내!



4월 15일(월) ~ 4월 19일(금)

제2기 산림경영 + 공학기술 전문과정

4월 15일(월) ~ 4월 17일(수)

제2기 산림경영 전문과정(20시간)

4월 17일(수) ~ 4월 19일(금)

제2기 산림공학 전문과정(20시간)

4월 22일(월) ~ 4월 26일(금)

제3기 기본교육과정

※ 과정별 클릭 시 해당 과정 교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은 최소인원(20명) 미충족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4	15	16	17	18	19	20
	제2기 공학+경영 전문과정(40시간)					
	제2기 산림경영기술(20시간)		제2기 산림공학기술(20시간)			
21	22	23	24	25	26	27
	제3기 기본교육과정(35시간)					

[교육원 홈페이지 가기](#)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일본 교토 기타야마의 삼나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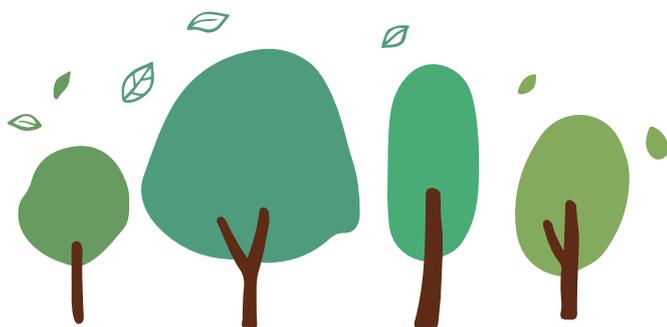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일본에 많이 자라는 나무는 삼나무, 편백나무, 낙엽송 등의 침엽수와 참나무류와 너도밤나무, 난대수종 등 활엽수가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수종인 삼나무는 상록교목으로 나무높이가 40m이상 자라는 침엽수로 줄기가 곧게 빨리 자라 건축재 및 내장재로 이용이 되는 경제수종이다.



사진2 = 수령 200년이 넘는 삼나무 정원수

교토 기타야마에서는 생산기간이 30~40년으로 소경 특수용재를 생산한다. 기타야마 지역은 삼나무 통나무 임업 지대로 번성하였는데 13세기부터 다실이나 다도를 위해서 지은 건물의 건축 용재로 이용이 되면서 유명해졌으며, 특히 16세기에 다도(茶道)가 퍼짐에 따라 기타야마 삼나무가 더욱더 유명해졌다. 기타야마의 다실용 삼나무 특용재는 변재부분이 매끄러운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는 목재를 생산한다. 기타야마 삼나무는 재질이 치밀하고 목재가 매끄럽고 광택이 있으며, 색이 아름답고, 변색도 없으며 균열이 생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타야마 통나무라고 불리는 것에는 기타야마 미가키 통나무, 천연 문양목, 인공 문양목 등이 여러 가지가 있다.



목재의 심재와 변재의 색 차이는 뚜렷하고 심재는 분홍색에서 진적갈색까지 상당히 다양하며, 나뭇결은 곱다. 일본에서 조림 면적의 40%가 넘는 440만ha가 삼나무 인공림으로 아키타 삼나무, 요시노 삼나무, 기타야마 삼나무, 야쿠 삼나무, 오비 삼나무 등이 유명하며 미야자키현, 아키타현 등이 주 생산 지역이다. 삼나무 건축용재는 70년 이상 키워 생산을 하지만, 내장재 등으로 이용되는 소경 특수용재는 생산기간이 짧다.



사진3 = 다양한 기타야마 삼나무 특용재

사진4 = 기타야마 삼나무 숲 전경





사진5 = 가지치기를 한 뾰뾰한 삼나무 숲

기타야마의 다실용 삼나무 특용재는 과거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특이한 무늬의 삼나무 줄기를 이용하여 왔으나, 2차 대전이후 그 수요가 급증하여 인공적인 줄기 문양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연산 문양목은 매우 귀하다. 기타야마 삼나무는 이러한 특용 목재뿐만이 아니라 정원수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으며 특이한 형태의 삼나무 정원수중에는 수령 200년 이상이 되는 것이 기타야마에 있다. 교토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기타야마 지역으로 들어서면 교토부의 나무 기타야마 삼나무 숲이 길 양쪽으로 펼쳐져 있다. 계곡 사면의 삼나무 인공림은 대면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삼나무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소면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삼나무 숲이 자리를 잡고 있어 영급림의 전형적인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데 이 지역의 경관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숲이어서 풍치보안림으로 지정이 되어있다. 숲 사이로 난 길로 들어서면 길 좌우로 곧게 자란 삼나무가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뾰뾰하게 있어서 마치 나무젓가락을 뾰뾰하게 세워 놓은 것처럼 보인다. 삼나무 줄기는 거의 10m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 아주 미끈하고, 수고 높이가 4~5m 정도 되는 삼나무도 모두 가지치기가 되어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사진6 = 벌채한 삼나무숲의 그루터기

기타야마에서는 조림용 묘목을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품종이 가지고 있는 형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 우량목의 가치를 채취하거나 종자를 채취하여 지역품종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숲의 모습은 기타야마 삼나무 숲은 종자로 생산된 묘목을 이용하지 않고 형질이 우수한 삼나무에서 삼수를 채취하여 2년간 묘목을 키워 ha당 5000본을 심고, 8~10년이 경과하면 3~4년 주기로 가지치기를 반복하여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수확을 한 숲에는 그루터기가 40~50cm 정도로 높게 남겨져 있어 멀리서 보면 하얀 말뚝을 세워 놓은 것 보이는데 급경사지에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채를 한 것처럼 여겨진다. 기타야마의 삼나무는 인공 문양목을 생산하기 위한 문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문양 작업은 가지치기가 끝난 다음 실시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문양을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설치작업을 해주는데 문양 작업을 한 삼나무는 숲속에 하얀색 망으로 싸여 있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다. 삼나무 줄기의 모양은 울퉁불퉁하여 모양이 이상하지만 껍질을 벗겨내면 굴곡이 있는 특유의 문양이 나타난다. 이렇게 자란 삼나무들은 수령 30~40년에 문양이 형성이 되면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커다란 삼나무 대경목을 보기 힘들다. 삼나무를 수확하고 나서 맹아림을 조성하여 한 그루터기에서 2~3개의 줄기를 자라게 하여 소경재를 생산하는 숲은 마치 정원의 조경수처럼 보인다. 기타야마 삼나무숲은 600년이 넘는 특용재(기타야마 미가키 통나무, 문양목 등)을 생산하는 숲으로 삼수로 생산한 묘목, 높은 식재밀도, 지속적인 가지치기, 숙아베기, 문양 작업 등을 통하여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숲을 조성하고 경영을 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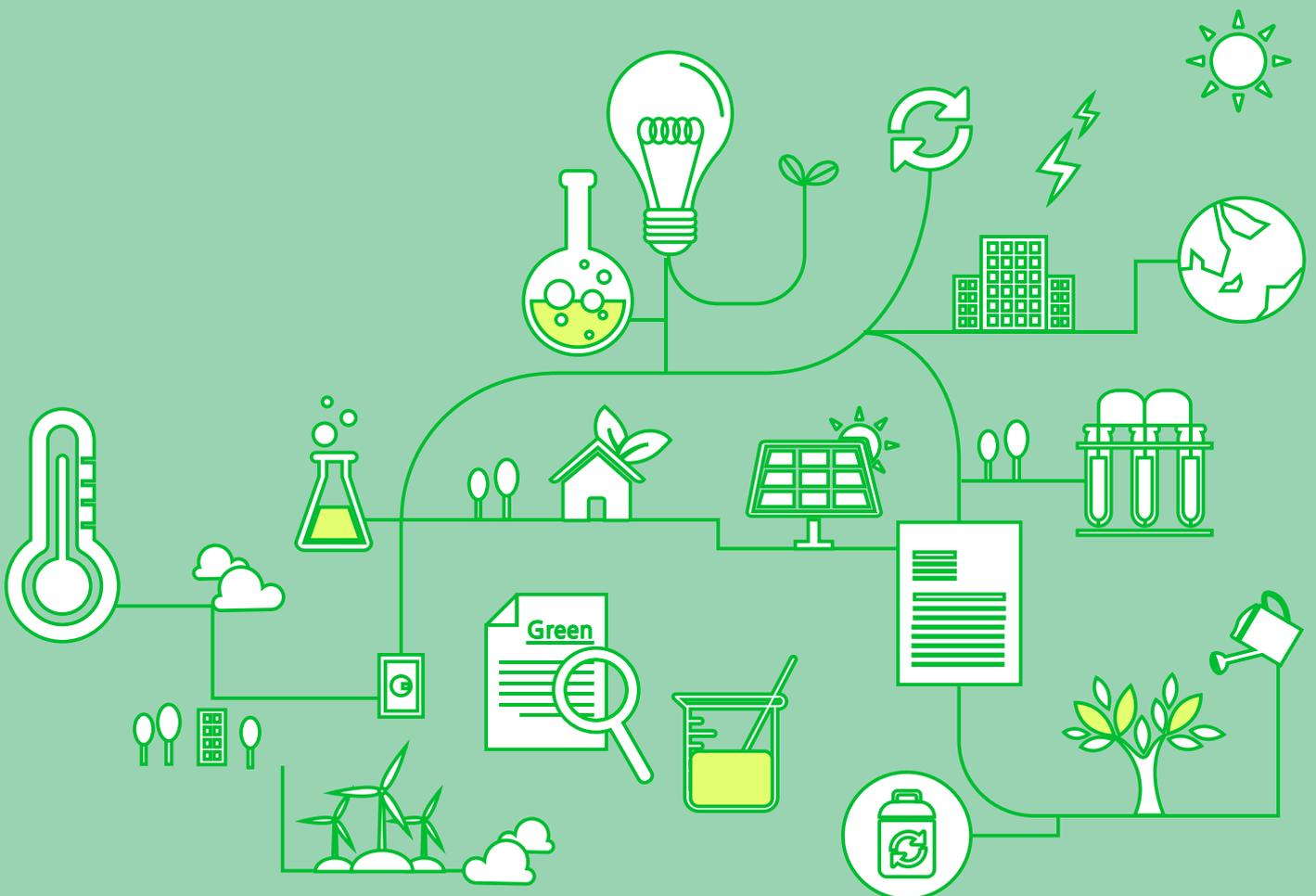
사진7 = 문양작업을 한 삼나무 숲

과학기술 발달로 K-산림 강국 도약

글_정선군 독립가(篤林家),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정병걸

임업(林業)이란 산림을 조성·유지하고 임목을 가꾸며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생산업(生產業)을 말한다. 초기에는 천연림을 벌채한 후 생산된 목재를 이용하는 것을 임업이라 불렀다. 목재생산 이외도 연료나 옷나무 진액, 대나무, 표고버섯 같은 임산물을 수확하는 1차 산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산림의 가치가 단순히 목재나 임산물을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자원 함양, 휴양·치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평가되면서 임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이를 관리하는 산림기술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산림관리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경영에 필수적인 것은 임업 노동력이다.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육성하고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림경영기반시설의 설계·감리 등 산림엔지니어링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산림 기술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실시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산림사업량도 비약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산림분야의 사업이 다양화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고차원적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임목수확을 위한 임도 등 산림기반시설 설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구 예방 사방사업 및 산불 방지 사업, 도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주는 도시 숲 조성,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병해충 방제,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임목의 이용 등 각 산림기술에 적합한 전문기술자의 양성 및 투입이 필요해졌다. 우리나라는 산림 특성상 산림사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여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임업의 발전을 위해 산림기술자와 같은 전문인력을 관리하는 방안과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2017년도에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기술 전반에 대한 산림진흥계획 수립, 산림기술 연구·

개발사업, 산림기술 정보체계의 구축, 산림기술자의 전문교육, 산림기술자 자격·경력증명서 발급 등 ‘한국산림기술인회’가 2018.11.29.자로 발족되어 현재 등록관리 중인 산림기술자 33천 여명, 산림기술 용역업 및 법인 업체 10천 여건의 산림기술자 등록 업무를 위임·관리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입국” 기치를 내 걸고 기초과학 및 기술혁신 투자 등을 위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 신설과 동시에 ‘과학기술수석’을 두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공무원 임용령」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육성책으로 기술직군(技術職群)을 직급표상 행정직군 앞에 우선 배치와 동시에 기술분야의 전문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을 (당초) ‘기술서기관’에서 (변경)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개선하는 등 과학분야의 인재 우대에 나섰다.

임업계도 산림과학을 중시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림기술교육을 강화할 때로 보인다. 임산업의 활동이 1차 산업에서 휴양 서비스산업까지 분야별로 맞춤형 전문가 육성과 재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그간 우리 산림분야도 과학기술을 접목해 왔으나 수요가 한정되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산업화가 어려운 구조로 국가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 산림정책을 입안하는 최고의 관리자들과의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킬 해안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입안자가 산림수장에 임명되도록 임업인, 산림기술자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산림분야도 과학기술을 접목한 산림진흥계획과 산업화가 요구되므로 그동안 산림경영의 일선에서 겪은 현장의 임업 정책·시행 등 지난 경험을 토대로 산림기술의 발전을 위해 본 지면을 빌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산림기술자 통합관리) 현재 운영중인 산림기술자(산림기사, 산업기사 등), 조경기술자(조경기사, 산업기사),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자(자연생태복원기사 등),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등과 미 포함된 나무의사, 산림종묘 분야, 산불방지분야, 산림복지·휴양분야 등 전 산림분야 기술을 「산림기술법」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산림기술 교육기관의 체계적 관리) 산림기술 교육은 기술자의 의무사항이자 기초과정이다. 산림공무원 교육은 ‘산림교육원’에서, 산림기술자 교육은 전국 8개 교육기관으로 분산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관장하고 모니터링 하는 부서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림기술인회장’에게 총괄기능을 위임 담당하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과 임직원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강구, 산림기술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산적(散積)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관리자 영입도 절실히 보인다. 세상사는 순리에 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를 거울삼아 중앙정부의 기술자에 대한 예우 정책에 발맞추어, 임업인들과 과학기술 직군 공무원(지자체 녹지직렬 포함),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단체는 역량과 지혜를 모아 산림과학기술 발전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K-산림 강국의 위상을 높였으면 한다.

자세히 보기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
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SNS 채널**에 접속하세요



친구추가



가입하기



이웃맺기

(클릭하시면 해당 SNS로 이동됩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주소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6층(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대표전화 1522-5936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1533-5160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및 회원문의)
대표팩스 (042) 489-8581 / www.tkfea.or.kr

※ 회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shekdms@tkfea.or.kr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드립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뉴스레터에 게재된 글,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발행일 2024년 4월 1일(월요일)

발행 한국산림기술인회 기획·편집·디자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일반사업본부 대외협력단